

여대생의 성(性)인식

김 귀 분* · 오 혜 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다양한 가치관의 형성을 가져 왔으며 신속한 적응력을 원하고 다분히 감각적인, 보여지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그 나름의 변화를 겪으며 그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뿐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면들 특히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76년 성은 신체적 안녕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에 중요한 요소임을 공언하였다(김상태, 1995). 성은 바로 인간(human) 그 자체이며 수정에서부터 출생후 더욱 뚜렷이 규정지어지는 유기체, 성별로 성에 따른 역할과 관련성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총체 또는 통합체를 성이라고 본다(김신정, 1995).

성은 인간의 문화에 의해 단순한 생물학적 실체 이상으로 만들어 졌으며 보다 광범위하고 기능적이며 보다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에서 보면 성적 표현은 결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가르쳐 왔으나 오늘날 성 관계를 갖는 것이 꼭 결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

고방식이 젊은이들과 성인들 가운데서 점점 성행되어 문란한 성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성개방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권현주, 1998). 인간의 성적행동은 다양하고 인간적 삶과 상호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적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게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21세기에 성(sexuality)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성한기(1996)는 청년들이 건전한 성 의식을 지니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성욕을 부추기는 섹스 산업이 창궐하고 있으며, 성에 관한 허용적 규범과 억압적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신체적으로는 성숙하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과 효과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성윤리나 행동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기준과 여성에 대한 기준이 규범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소위 성에 관한 2중 기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라 국민의 의식구조도 변혁을 가져와 종래의 가치체계가 붕괴되어 성도덕에 혼란과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성에 관한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부각되게 되었다. 이에 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에 관한 올바른 개념에 기초를 둔 인간의 행복과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적 교육이 요구되며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이해에 목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과학부 교수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박사과정 수료

표를 두고 청년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윤가현, 1990).

또한, 최근 성교육이나 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급격한 사회변천과 각종 매체의 발달에 의한 성(性) 정보의 범람 및 성적 자극의 심화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되어 가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대학생의 성 문제 중 특히 여대생의 성 문제는 먼저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변화와 성장을 이해하는 일과 성 의식의 변화에 따른 남녀간의 원만한 이성관계를 형성시키며 이것이 장차 행복한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신정, 1995).

인간의 발달과정을 볼 때 여대생은 여성의 일생중 사춘기에서 성인생활로 접어드는 이행기인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특히 청년 후기인 19~22세사이의 연령층(박영숙 외 3인, 1999)으로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생명을 성장시킬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이들 여대생이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올바른 성적 성숙 및 건강한 성 가치관의 확립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미래인 새로운 생명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성 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의 성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김혜연, 1990; 이경희, 1991; 김홍용, 1993; 최윤정, 1993; 윤미영, 1994; 김신정, 1995; 성한기, 1996; 강병우외 9인, 1997; 구은숙, 1997; 권현주, 1998) 성 인식의 일부분만을 조사하거나 성의 지식 및 태도 등에 관한 내용의 질문지를 이용해 조사한 연구로 표면적인 연구 결과의 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살아 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여대생들이 가지는 성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21세기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인 여대생이 건강한 성 인식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간호학적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성에 대한 인식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보다 질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한 전인적 간호중재를 모색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의 성 인식의 의미를 확인한다.
- 2) 여대생의 성 인식의 의미구조를 기술한다.
- 3) 여대생의 성 인식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간호학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인간의 성

성이란 무엇인가. 동서양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그 뜻과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마음(心)'과 '생기다(生)'라는 뜻의 합성어로서 주로 품성, 타고난 성질, 마음의 본체 등의 인격(personality)을 나타내며,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정태적 의미를 지닌다(정하성, 1992). 즉 글자 그대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말한다. 반면 서양에서의 'a sex'는 'sexual life'적인 행위감각을 수용하므로 성행동적인 동태적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으며, 나눈다는 뜻의 라틴어의 'secare'나 영어의 'seco'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은 원래 한 몸이었던 남녀(androgynous)를 신이 둘로 절단했다고 하는 신화에서 생겨났으며, 그 의미는 남녀의 인간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현옥, 안창선, 1992).

이러한 의미를 지닌 성은 '나' 아닌 타인을 알게됨으로써 작은 테두리의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한층 발전케하여 인생에 대해서 보다 깊은 안목을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이정숙, 1985).

성이란 인간의 성 행동은 물론이고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환상, 꿈, 태도, 감정, 가치관, 신념, 이해심 및 개인의 존재 의미 등의 모든 것을 지칭한다(김혜숙, 1995). 즉, 육체적인 측면이 중요하지만, 감정, 의지 또는 행동방식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요소들도 포함되는 남녀간의, 동성간의 육체적 사랑, 육체적 접촉, 관능적 쾌락, 욕망, 감각적·감성적인 친밀성 등 인간 사이의 성 생활과 관계되는 용어들을 포괄하는 총괄개념이다(이상화, 1995).

인간에게 있어서의 성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신, 신체 및 영혼의 상호작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건강한 성은 성적 존재와 행동의 통합된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및 윤리적 측면으로부터 나오며, 그의 영향은 인격 및 인간상호관계의 발달을 증진시킨다(최윤정, 1993).

또한 인간의 성은 자기개념, 타인과의 관계, 일반적 행동 양태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전체적 인격과 관련이 있기에

인간의 성은 하나의 계통인 성적 계통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인간의 성의 계통은 생물학적 성, 성별 동일성과 성별 역할 그리고 성적 역할 행위를 핵심 구성요소로 하며 이것에 친교, 사랑, 성윤리와 성도덕을 통합하여 성적 계통의 총체적인 것으로 성적 동일성을 이루며 이러한 성적 동일성은 자기 동일성의 한 부분으로 내포된다(김상태, 1995).

성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하에서 학습되며 사회 각 영역의 변화 추세와 연결되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오늘날 개인주의의 심화, 여성해방운동, 매스미디어의 발달 등은 성적 태도와 행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성한기, 1996) Carrela와 Calderone(1983)은 성의 개념을 인간의 총체적인 면으로 논의하며 이 총체적인 면에는 소년과 소녀, 여성과 남성 등에 관계되는 것과 인생의 역동적 변화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하였다. 특히 총체적 기능으로 볼 때 성(sex)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발달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인간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및 문화적 삶의 변수에 관계된다고 하였다.

Reiss(1989)는 성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종족보존의 기능 외에 육체적 쾌락을 제공하며 또한 자기개방의 한 형태여서 타인과 친밀해지는 수단으로도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윤가현(1990)은 현대인의 성행동의 목적이 종족보존으로부터 친교나 쾌락추구 등 인간의 정서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함중환(1992)에 의하면 현대로 들어와서는 일종의 성적 혁명(sexual 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개방성에 기초하고 있고, 성과 사랑의 분리에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혁명의 형태는 범람하는 각종의 성에 관련된 유인물과 같은 성적 정보의 홍수시대 조류에서 안전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에 관한 사회적 허용이 높아져 있으며 이러한 성의 대중화와 일상화의 추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은 인간의 삶의 측면을 포용적으로 조망하며 삶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조류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 내면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 주는 인간 본성으로, 인간의 성이 건강하고 건전한 때 인간 본연의 모습이 억압되지 않고 자유로우며 아름다울 수 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기쁜 존재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2. 여대생과 성

인간의 발달과정을 볼 때 여대생은 사춘기에서 성인생활로 접어드는 이행기로서 19세~22세의 사이의 연령층인 청년 후기 또는 성인 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로 인정되는 시기로서 가치를 명료화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여 야망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시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인생계획을 세우는 때로 성숙, 친밀성 및 주체성의 발달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권미경의 2인, 1998). 특히, 성적 성숙의 일차적 관문인 성적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마지막 고비에 있거나 가까스로 확립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윤가현, 1990). 특히 여대생은 가입과 양육을 맡게 될 소중한 자원으로 가족의 건강 및 생활 영위를 하는데 근원이 되며 가족의 건강과 안녕은 건전한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므로 건강한 국가의 척도인 것이다(김신정, 1995).

성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자신의 느낌과 성 행동 양식에 대해 잘 알아 필요시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성 욕구를 기쁨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통합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성적인 특성에 대하여 즐거움과 자연스러움을 느껴야 하며 성에 관련된 인간적인 경험을 상호 나누고 격려하고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WHO, 1995; Strong & de Vault, 1994).

성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자신이 이미 남자이거나 여자임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 속에서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고유하게 느끼며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Kolberg, 1966).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은 독자적인 성격을 띄지만 개인 영역에 제한되기 보다는 사회적인 속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독립적인 인간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을 때에 타인과 관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알수 있다(Giddens, 1992).

그런데 여성은 성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성 자신이 기쁘거나 삶의 의미가 풍성해 질 수 있다는 보편적인 기대보다는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위협 요인으로 작용되고 성적으로 취약하고 성적인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장순복, 1996).

또한, 여성과 남성은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반응 양식, 그에 대한 의미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 남자에게 성은 드라마 중의 즐거운 이야기 정도이지만, 여성에게는 친을 짜고 있는 한 울, 한 울의 실과 같고, 남자의 성적 충동은 육체적인 필요에서 시작되나 감정적인 필요가 동반되는 데 비하여 여자의 성적 충동은 감정적인 필요에서 출발하여 육체적인 필요가 충

족되는 과정을 거치고, 남자는 한순간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여자는 순간 이후에 뒤따를 결과를 생각해야 하고, 남자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여자는 반응의 속도가 느리고 보다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 남자는 오감 중에 주로 시각에 의해 강한 자극을 받지만, 여자는 촉각, 청각, 미각, 후각뿐 아니라 부드러움의 영향을 받는다(Strong & de Vault, 1994). 이와 같이 남녀간에는 생리, 심리, 사회적 인 차이가 매우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과 관련된 연구는 성별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차이가 있어 그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가 요청되나 현재 여대생에 관한, 특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인 성적 성숙과 관련된 성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들로서 서술적 조사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여대생 그들의 입장에서 인간 삶의 맥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부분으로써의 성에 대한 인식을 질적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므로 그들의 성 인식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21세기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여대생들이 올바른 성 인식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간호학적 중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설계

1.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 및 정당화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 인식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의미구조를 기술하여 이를 근거로 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 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방안을 이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다양한 느낌이나 견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포커스 그룹(focus group) 면담방법을 이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포커스 그룹은 연구자에 의해 명시된 문제점들에 대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폭넓고 깊이있게 수집하는데 특별한 장점을 지닌다(Peter, 1997). 또한 탐색과 발견, 맥락과 깊이, 해석에 유용한 방법으로 특히, 잘 모르는 주제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자주 이용하며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참여자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들으면서 그들의 경험과 견해를 심도있게 알 수 있으며 의형적으로는 매우 달라도 상호간에 어떻게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는지와 같은 대비를 통해 연

구 주제에 관한 해석적 통찰력을 얻게 된다(김성재의 3인, 1999).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서울 시내에 소재한 일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으로, 면담 방법으로 포커스 그룹을 이용하였고 각 집단별 구성원은 3명~4명으로 집단 구성원간의 친숙 정도를 고려하여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시점인 총 3개 집단, 10명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고나 판단이 일관성이 있고 명료한 자
- 2)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자 훈련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현상학적 접근은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연구주제에 적합한 심층 면접 및 참여, 관찰의 조사방법이 사용된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도구이므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훈련을 위해 기존 문헌에 대한 연구와 질적 간호연구 및 면담기법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학회 및 학술대회 등의 참석, 논문 탐독을 통하여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특히 질적간호연구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학술모임 및 논문발표회를 준비하고 참여하여 학문의 깊이를 더욱 심화하였으며 질적간호연구 전문가와 같이 다니면서 면접 및 분석 방법을 숙련화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 기법을 익히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 기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00년 2월부터 자료가 포화 상태에 이른 2000년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수집방법은 포커스 그룹을 이용하여 각 그룹별 구성원은 구성원간의 친숙 정도를 고려하여 조직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각 포커스 그룹별 참여자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선정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참여자와 상호 호혜적인 신뢰감과 친근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면담 장소는 참여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 면담하기를 원하는 장소로 교내 강의실이나 조용한 카페 등에서 진행하였다.

각 그룹별 연구 참여자들의 역동성을 고려하면서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허락 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면담시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형태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참여자의 내면 세계를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도록 하였으며 질문내용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대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갔다. 면담 동안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발췌하고 메모하였다가 의미가 모호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라도 참여자들의 대화에 끼어 들지 않으며 대화가 끝났을 때 핵심내용을 유도하여 확인하였고 부족한 내용은 다음 면담시에 다시 질문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1시간~2시간으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1시간 30분이었고 각 포커스 그룹별 면담 횟수는 5~6회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성 인식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Giorgi 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참여자의 진술을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기술문을 중심으로 비평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여러 번 읽으면서 꼼꼼히 생각한다.
- 2) 기술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돌린다.
- 3)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단위, 즉 참여자의 말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기술의 단위를 중심으로 표현양식이나 어휘는 다르지만 의미의 단위를 규명한다.
- 4) 이러한 단위에서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주제를 규명한다.
- 5) 그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술단위 내에서 참여자의 경험이 참여자에게 의미하는 중심 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한다.

- 6) 중심 의미를 통합하여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구조적 기술을 만든다.
- 7) 상황적·구조적 기술문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구조적 기술을 만든다.

이상의 분석 방법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믿을 만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적연구방법을 연구하는 간호학 전공교수, 국문학 전공교수의 자문을 받았으며, 최종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되돌려 그들의 인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IV. 연구수행 과정에 따른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참여자의 신분 및 신상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을 것과 필사 및 녹음 자료는 연구후 소멸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여대생의 성 인식의 의미구조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한 여대생의 성 인식의 의미는 심리적 설레임이 나타는 것, 누구에게 소속되어 지는 것,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은 것, 또 다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상대에게 최선의 존재여야 되는 것, 조건과 조건이 서로 어우러 지는 것,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을 하는 것, 남녀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 새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 육체적 접촉이 가능한 것, 동성애가 가능한 것으로 규명되었으며 이를 일반적·구조적 기술로 확인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표 1> 여대생의 성 인식

중심 의미	주 제	원자료
심리적 설레임이 나타나는 것	특별한 기분을 느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u>feel</u>이 와서 · 남자친구랑 손잡을 때 <u>느낌</u>이랑 다른 거 · 아 짜릿해 · <u>skin ship</u> 같애 · <u>희열감</u>을 느끼잖아 · 얼마나 <u>황홀</u>했는지 · <u>이상하게</u> 기분이 좋아
	신비로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비롭지</u> 않냐 · <u>신기</u>해 가지구
	긴장감을 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긴장감</u>을 주는 거 같애 · 처음에 볼 때 되게 <u>긴장</u>하고
	호기심이 나타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기서 또 <u>우리끼리 상상</u>하구 그러잖아 · <u>육체에 대한 호기심</u>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 · <u>은근히 잘</u> 알아요. · <u>더 잘</u> 알아. · <u>호기심</u> 때문에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거 아냐 · 그 나오는 느낌이 <u>어떻게</u> <u>궁금</u>하드라. · <u>궁금</u>하지 않냐? · 너무 너무 <u>궁금</u>할 거 같아 · 남자 <u>몸</u> 보고 <u>싫지</u> 않냐 · 남자가 여자<u>몸</u> <u>보고</u> <u>싶은</u>게 더 높지 않냐? · <u>궁금</u>한가봐. · 한번 <u>자</u>보면 <u>알지</u> 않을까? · 저 <u>남자</u>랑 <u>손잡</u>으면 <u>어떻</u>까 <u>무수</u>한 <u>상상</u>을 <u>한다</u>니까. · 난 <u>훔쳐</u> <u>보</u>고 <u>싶</u>겠다. · TV에서 <u>영화</u>에서 <u>멋</u>있는 <u>장면</u>만 <u>봐</u>도 <u>아우</u> <u>느낌</u>이 <u>어</u>떨까. · 그냥 <u>입술</u>이 <u>도톱</u>하게 <u>매력</u>적인 <u>사</u>람<u>보</u>면 <u>저</u> <u>사</u>람<u>하</u>구 <u>키스</u>해 <u>보</u>면 <u>어</u>떨까. <u>그</u>런 <u>생</u>각이 <u>들</u>지. · <u>전</u>철 <u>안</u>에 <u>닐</u>린 <u>사</u>람 <u>다</u> <u>한</u>번<u>씩</u>은 <u>상</u>상 <u>속</u>에서 <u>내</u> <u>스</u>타일<u>이</u>라구 <u>생</u>각<u>들</u>면..... · <u>코</u> <u>크</u>면 <u>정</u>력 <u>세</u>다구 <u>그</u>러<u>잖</u>아. <u>난</u> <u>코</u> <u>큰</u> <u>사</u>람 <u>딱</u> <u>보</u>면 <u>저</u> <u>사</u>람 <u>셀</u>까 <u>기</u>끔<u>씩</u> <u>그</u>런 <u>생</u>각<u>하</u>는 <u>데</u>....
	감추고 싶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자</u>랑<u>스</u>럽게 <u>말</u> <u>할</u> 수 <u>있</u>을 <u>거</u> <u>같</u>은데 <u>막</u>상 <u>그</u>러<u>면</u> <u>하</u>지 <u>못</u>해 · <u>감</u>추고 <u>싶</u>은 <u>것</u>도 <u>있</u>을 수 <u>있</u>는데 · <u>일</u>생 <u>일</u>대<u>의</u> <u>비</u>밀<u>이</u>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지는 것	일방적으로 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받</u>는 <u>사</u>랑 <u>해</u>보구 <u>싶</u>어 · <u>받</u>는 <u>사</u>랑을 <u>해</u>야 <u>행</u>복<u>하</u>다 <u>잖</u>아 · <u>보</u>호 <u>받</u>고 <u>싶</u>구 · <u>여</u>자<u>에</u>게 <u>잘</u> <u>해</u>줄 <u>것</u> <u>같</u>구 · <u>해</u>달<u>라</u>는 <u>대</u>로 <u>해</u>주<u>니</u>까 · 남자가 <u>먼</u>저 <u>말</u>을 <u>걸</u>어야... · 터프<u>하</u>면서 <u>날</u> <u>리</u>드 <u>할</u> 수 <u>있</u>으면서... 누가 <u>좀</u> <u>날</u> <u>끌</u>고 <u>갔</u>으면 <u> 좋</u>겠는데 · 난 <u>그</u>런 <u>때</u> <u>남</u>자<u>가</u> <u>야</u> <u>이</u>거 <u>하</u>자 <u>그</u>러<u>면</u> <u> 좋</u>겠어 · <u>조</u>금은 <u>내</u>가 <u>하</u>고 <u>싶</u>은데 <u>남</u>자<u>가</u> <u>하</u>면은 <u>하</u>게 <u>되</u>는 <u>거</u> <u>같</u>은데
	먼저 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왜</u> <u>여</u>자는 <u>남</u>자<u>가</u> <u>먼</u>저 <u>해</u>주<u>기</u>를 <u>바</u>라<u>냐</u>? · <u>여</u>자<u>가</u> <u>먼</u>저 <u>남</u>자<u>를</u> <u>유</u>혹<u>하</u>단 <u>말</u>이야.
	관심을 유도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잘</u> <u>생</u>긴 <u>사</u>람 <u>있</u>으면 <u>괜</u>히 <u>날</u> <u>좀</u> <u>한</u>번 <u>더</u> <u>쳐</u>다 <u>봐</u> <u>주</u>었으면.... · <u>잘</u> <u>보</u>일<u>려</u>고 <u>그</u>러는 <u>게</u> <u>다</u> <u>계</u>획<u>이</u>었어
	소유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소</u>유<u>욕</u>이<u>잖</u>아 · <u>자</u>기<u>꺼</u> <u>인</u> <u>거</u> <u>보</u>여<u>주</u>어야..
	일방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u>용<u>자</u>의 <u>입</u>장<u>이</u>구, <u>주</u>는 <u>그</u>런 <u>거</u> · <u>보</u>여<u>주</u>는 <u>입</u>장<u>이</u>구, <u>보</u>는 <u>입</u>장<u>이</u>구 · <u>주</u>는 <u>입</u>장, <u>받</u>는 <u>입</u>장<u>이</u>구. · <u>눈</u>길<u>한</u>번 <u>주</u>면 <u>자</u>기 <u>좋</u>아<u>하</u>는 <u>줄</u> <u>알</u>잖아.

중심 의미	주 제	원자료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은 것	기대고 싶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구 싶구 · 기대구 싶다
	부딪치고 싶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에 안기고 싶다 · 난 팔짱끼는 게 좋아 · 여자들도 은근히 바라는 게 있을 수 도 있잖아 · 잘생긴 남자에 있으면 전철안에서 벌루 안 흔들리는 데도 예잉 하면서 그러구 · 좋아지면 자면 안되는 건가 · 손잡고 싶다 · 키스하고 싶다
	같이 있고 싶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어지기 아쉬운 거야 · 보고 싶기두 헤어 나두.
또 다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널 이해해 주면서 그냥 그 관계를 지속해 가는 거 · 이해를 하면서 서로 비슷해지구
	서로 책임을 지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을 져야 할 거 같아 · 끝까지 뿌리치지 못하고 지키는 거지. 근데 책임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만. · 남자도 여자를 책임지구, 여자도 남자를 책임지구. 어쩌면 의무감으로 그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아내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못하게 억제해서 그렇지 · 처음에는 억제해서 잘 구어 살아야지 · 억제된 나의 본능을 감춰다가 나타내면... · 그냥 참구 살면서... · 남자들 사이에도 참기 쉬울 텐데 · 끝까지 참아야해 · 결혼은 참구 사는 거라구 · 이해하구 참구 그런 거 같애 · 하구 싶으면 해라 그거 참느라구 더 스트레스 심하니까 · 다 참구 기다려요
서로 믿고 사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라구 생각해 ·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 다 적응하며 사는 건데 ·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 못 믿을 수 도 있지 	
상대에게 최선의 존재여야 되는 것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결은 지켜야 될 것 같아. · 배우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 · 의리, 의리같은. 그 지켜야되는 의리 때문에 · 몇십년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는지. · 내가 몇십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니까. 너무 아까운 거 아냐? · 원래 의도는 생명을 만드는 행위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무 생각없이 그냥 하는 건.. · 순결을 고귀한 작업이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데. · 약간의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 하는 건... · 진지하게, 생각없이 하는 건 별루.
	정신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생각엔 정신적 순결 이란게 · 순결은 정신적인 부분이 큰 거 같애. · 그런 걸 떠나서 순결이란게 자기만족이라구 해야되나. · 난 인간의 행복은 만족이라 생각해 현실에 대한 만족이지 · 자기가 만족을 하니까 하는거겠지. · 그 사람이 순결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구 결국에는 갈라서서 그런 거 억울해. · 내가 왜 불쌍해야 되는데. 내가 막 불쌍해. · 순결이란 단지 육체적인 순결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 정신적으로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구. · 순결하면 딱 떠오르는게. 나를 보호하는 거라구 생각했는데, 더러움이 묻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구. · 생각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더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심 의미	주 제	원자료
상대에게 최선의 존재여야 되는 것	상대에게 유일한 상대여야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가장 <u>처음</u>이구 싶구. · 나를 위해서 <u>지키고 싶어</u>. 결혼할 사람이라면 자도 된다구
	서로에게 거리낌없는 상대여야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한테 <u>켁기지</u> 않구 <u>꺼림없는</u> 깨끗한 상태. · 난 내가 <u>순결</u>하지 못하다구 생각은 안해. · <u>켁기지</u> 않으면 끝이야. · 이 남자를 사랑해서 관계를 갖는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 <u>켁기지</u> 않는 거 아냐.
	자유로워지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히려 <u>자유롭게</u> · 부담감이 없는 거 같애. · <u>감성적이거든</u> 순결을 잃었다구 표현하잖아. · <u>부담없이</u> 만나구. · 한번 두 번 보고 사랑하는 수도 있지 않냐? 어차피 뭐 사랑은 제량도 할 수 있는데. · <u>누구랑이라도</u> 사랑할 수 있을 거 같애.
조건과 조건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	외모를 보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외모가</u> 호감을 주는 건 · <u>외모가</u> 중요한 거 같아요 · <u>외모에</u> 대한 기준이 중요하지 · <u>외모니까</u> · 결국 <u>외모에</u> 많이 치중되구 · 그래도 보면 <u>예뻐서</u> 니쁠 건 없잖아 · 여자는 능력보다는 <u>얼굴</u>이라구 해 가지구 다 예뻐졌잖아 · 마음이 예쁜 애들은 나중엔 어떻게 보이든지 예뻐 보이 더라구 · <u>얼굴만</u> 반반하면 뭐해
	가문을 생각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집안을</u> 보구 · 나와 비슷한 <u>학력, 성격</u>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 · 어른들 <u>말씀</u>이 맞다 · <u>엄마한테</u> 맞출려구
	물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사랑해서 둘이 <u>집나</u>와서 둘이 막 <u>가난하게</u> 살면 난 안 행복할 꺼 같애. · 단 돈 대줘야 되는 거야. 돈이 <u>넉넉한</u> 상태에서 애기만 키우는 거 지. ·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u>사랑만으로</u> 살 수 <u>없다는</u>. · 1달은 행복할 꺼 같애. 그러다가 돈 <u>걱정</u>되구 식량 떨어지면 서로 <u>정네미</u> 뚝떨어질 꺼 같애. · 돈 많은 남자 <u>확</u> 잡았으면 <u>돈걱정</u> 안하구 살았으면.. · <u>웬지</u> 능력이 있어야 할 꺼 같애. 요즘은 <u>능력을</u> 더 중요시 하게돼. · 자식이 <u>하구</u> 싶다는 거 다 못해 주구 그런 감정 느끼기도 싫구. · 결혼이 약간 <u>사회적</u>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약간은 남편이 <u>돈</u> 많이 벌어 오구 자기가 좀 <u>안정적</u>으로 살려구 결혼하는 거 같애. · <u>돈</u> 많구 · <u>그 돈</u>은 가지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되니까. · <u>돈 많고</u> 명 짧은 남자 좋다구. · <u>돈이</u> 필수야. · 요는 그거네. <u>돈</u>이 찰. · <u>돈</u>을 많이 밝히는 거 같애. · 한번 잠자리 할 때마다 애를 몇십만원씩 준데. <u>돈</u> 때문에 한번 더 하구. · <u>1억</u>을 준다면 <u>감동</u>되게 될 거 같애. · <u>2억</u>을 가지구 내 생활이 바뀔 수 있잖아. · <u>돈</u>을 많이 가지구 있어야 한다구 생각했구. 나중까지 살 거라면 능력이 중요하지. · <u>돈</u> 때문에 사귀는 거잖아.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을 하는 것	결혼과 사랑은 차이 지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데 만나다 보면 <u>정</u>이 들어서 <u>결혼</u>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싫을 꺼 같애. 더 좋은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 꺼야. · 사랑을 하더라도 <u>항상</u> <u>깊이</u> 빠지게 <u>않게</u> <u>절제</u>. · 연애하고 결혼은 너무 틀리니까. · 결혼은 <u>생활</u>이라구 보니까. <u>다르</u>잖아. ·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해서 생활하는 건 <u>다르</u>잖아.

중심 의미	주 제	원자료
남녀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	남자와는 다른 입장이어야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는 여러 개의 방에다 한 명씩의 여자를 두는 데 · 이렇게 잡으면 <u>이렇게 잡으라구</u>(꼭지 끼게) · 성욕을 느낄 땐 <u>아무하구나</u>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가질 수 도 있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 <u>심심하면</u> 부산가서 애 불러서 <u>자구</u> 또 제 불러서 자구 · 여자여서 막 억울한 거야 · <u>답답하구</u> 되게 기분도 <u>우울하구</u> · 신씨집 귀신이 되는 거구 어머니 봉양하는 거는 <u>당연하구</u>. · 그건 또 어쨌든 <u>사회적인 영향도</u> 있는 거 같애. · 남자는 여자 따라 가구. · 말도 되게 안 듣구 그러더니 한번 자구 나니까 막 <u>고분 고분해</u> 졌다구. · <u>그 남자의 여자라</u> 순종하구. · <u>자기네들은</u>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왜 결혼하면 왜 여자가 순결하지않나구 <u>그것 가지구</u> 난리냐구. · 남자들의 그래서 어쩔 수 없어. · <u>이 남자를</u> 너무 좋아해서 관계를 갖는데 남자는 단지 그게 하구 싶어서 하구 · 한번의 성관계나 20번의 성관계나 그게 <u>아무 차이도</u> 없는 건지 얼마나 충격이었는데.... · 아무 느낌도 없네. · <u>남자애들은</u> 해볼 거 다 해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자보구 헤어지는 것도 있구 · 남자들은 딱 그 사정할 때 그때로 딱 끝나는데 <u>뭐 여자들은</u> 더 늦게까지 하는데 남자들은 자기만 좋으면 딱 끝나구 그러다구. · 남자들은 이래도 <u>괜찮아</u> 그러구 여자는 언제나 한 남자를 바라보아야 하고
	창피해야 하는 것 (남자친구가 없음에 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u>능력있는 것처럼</u> 보이구 약간 <u>악세사리식으로</u> 그러는 거두 있구..... · <u>창피하구</u> · <u>창피하니까</u> · 아무한테도 비밀로 하자. <u>창피하다</u>. · <u>창피해</u> 죽는 줄 알았어. · <u>창피해</u>, 솔직히. 경험없는게 자랑이 아니라구... · <u>부끄러워</u>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들은 <u>더럽다구</u> 다시는 보기 싫다구 생각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밤마다 생각이 나타나. · <u>더러운데</u>. · <u>더럽구</u> 역겨울거야. · <u>아주 더러워</u>. · <u>더럽구</u> 어떻게 저런 걸 하나. 환상이 깨지는 거야. · <u>더럽구</u>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생명을</u> 만드는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라는 거. · 아기가 <u>생명을</u> 지닌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치 못했어 · <u>진짜</u> 생명을 만드는 거 그걸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 그 당사자가 되면 애를 못 낳구 · 니가 <u>애기 못나면</u> 어떻게 해 · 내 남편 자식 데려오는게 더 낫지 않나? · 씨받이를 하든지 그렇게 <u>애 낳아주는</u> 여자를 하든지 · <u>애만</u> 낳으면 좋겠어. 애기만 있었으면 좋겠어. · <u>배가</u> 아파도 애를 나면 참 좋을 꺼 같은데. · 난 가끔씩 애기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해. 남편은 필요없어. · 저 사람의 <u>아기를</u> 갖구 싶어. · 왜 그 사람의 <u>애를</u> 갖구 싶은데 왜 결혼해. 그냥 애만 낳으면 되지.
육체적 접촉이 가능한 것	키스까지 할 수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날 소개팅에서 뭐 <u>키스까지</u> 했네. · <u>키스하는</u> 거야 처음 만나서 좋으면 · <u>난 키스까지</u>. · 맞아, <u>키스까지는</u> 괜찮아. · 금방 헤어지는데 그 안에 <u>해볼 건 다</u> 해보잖아. 만난지 일주일만에.. <u>키스는</u> 기본인 거 같은데 한 일주일 안으로...

중심 의미	주 제	원자료
육체적 접촉이 가능한 것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 아무 남자랑도 잘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서 살꺼야. 하지만, 의식을 하게 되잖아. ·순결도 거의가 90%인 주위의 시선 때문에 지키는 거 같애. ·순결이란 건 왜 지켜야 하는 잘 모르겠어 ·300일인가 200일 기념으로 잤다는 거야. ·계네는 사귀다는 거 자체가 자는 것까지 가잖아. ·근데 지금은 잤다는 거 밝히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눈에 반했다가거나 호감이 가 그러면 처음 만난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u>Skinship</u>이 가능하 다구 봐. ·사귀자는 말 떨어지면 손잡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안는거 아무렇지도 않는거구. ·사귀다는 말이 언제부터가 약간의 신체접촉의 허용이라는 단어도 사용되는게 되게 많아가지구. ·나두 되게 좋아해. 나두 특하면 앵기구 안아
동성애가 가능한 것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성애는 <u>정신적으로만</u> 가능하다고 생각해. ·난 동성애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성애가 사는데 막 그렇게 문제가 될까? ·동성을 사랑하구 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데. ·정말 남자같은 여자가 있으면 괜히 끌리는 거 있잖나? ·여자애랑 다르게 느껴지는 여자가 있었어.

여대생의 성 인식의 의미구조는 <표 1>과 같이 11가지의 중심의미로 분류하여 일반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첫 번째 여대생이 지니는 성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설레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별한 기분을 느끼는 것, 신비로운 것, 긴장감을 주는 것, 호기심이 나타나는 것, 감추고 싶은 것 등 5가지의 주제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인체의 변화 및 섭리에 매우 신비로워 하며 그 신비로움은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적은 여대생에겐 기본좋은 긴장감을 가져왔다. 또한 동료나 책 등으로부터 얻은 성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은 여대생으로 하여금 깊은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심은 쉽게 드러내기 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이며 상대와의 만남에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간에게 성(sexuality)은 강한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는 주제로(김소야자, 1986) 성에 대한 감정, 느낌은 개인의 행동과 표현방법 및 방향을 규정하고 모든 정신생활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김윤숙, 1998). 그러나 현대에는 마스크 및 인터넷에 의한 성적 정보의 무방비 유출, 과잉된 보도 속에서 여대생들이 성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감정,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여대생들의 성에 대한 긍정적 감정인 심리적 설레임을 그들이 잘 유지,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여대생이 지니는 성에 대한 인식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주제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 먼저 주는 것, 관심을 유도하는 것, 소유되는 것, 일방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단계상 친밀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

로, 대인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여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누군가 먼저 시작해 주길 바라며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유도하여 선택되어 지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있다.

성에 대해 갖는 이러한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친밀감을 형성해 가는 여대생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욕구중의 하나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충족이 가능한 것이다(권민경외 3인, 1998).

건강한 대인관계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비판되고 비난될 수 있으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함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감정이입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히 지각하는 것이다(Black & Jacobs, 1993).

그러므로 여대생들이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잘 충족되어 개개인의 성숙으로 이어지려면 그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잘 알아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여대생이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은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대고 싶은 것, 부딪치고 싶은 것, 같이 있고 싶은 것이 그 주제로 나타났다.

성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느낌과 성 행동 양식에 대하여 잘 알고 필요시마다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성 욕구를 기쁨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성적인 특성에 대하여 즐거움과 자연스러움을 느껴야 하며 성에 관

련된 인간적인 경험을 상호 나누고 격려하고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Strong & de Vault, 1994).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누군가와 같이 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수준에서의 부딪힘이 아니며 심리적인 지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성과의 신체·심리적 유대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대생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성적인 존재로서의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여대생이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른 자신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으로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 서로 책임을 지는 것, 참아내는 것, 서로 믿고 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한 성을 논의하려면 성적인 현상과 긍정적 신체관에 대한 지식, 개인의 성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감정이나 정서적인 상태,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 등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의 가치 체계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Wheat & Wheat, 1980). 즉, 건강한 성이란 긍정적으로 풍부해지며 인격과 의사 소통과 인간간의 사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성적 존재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식, 감정, 사회적 관계를 통합시킨 상태로써 결론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상호 의존할 수 있고, 자신의 성 행동에 대하여 확고하게 존중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상태를 말한다(장순복, 1996).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성이란 상대를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겪게되는 삶의 여러 부정적인 상황도 참아내고 수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대견해 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에 대한 여대생들의 이러한 성 인식은 건강한 성을 지니게 하는 밑거름이 되므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요청된다.

다섯 번째 여대생이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에게 최선의 존재여야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 정신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 상대에게 유일한 상대여야 하는 것, 서로에게 거리낌없는 상태여야 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을 주제로 포함하고 있다.

성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자신이 이미 남자이거나 여자임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 속에서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고유하게 느끼며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Kolberg, 1966).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은 독자적인 성격을 띄지만 개인 영역에 제한되기보다는 사회적인 속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독립적인 인간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을 때에 타인과 관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Giddens, 1992).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들은 육체적·정신적 순결을 배우자에 대한 예의와 배려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많은 조사연구결과(김신정, 1995; 성한기, 1996; 강병우외 9인, 1997)와 일치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대생에게 지배적인 의식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신에게 정당하고 자유로움이 결국 타인에게 최선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성적으로 자율성과 자부심을 지닌 존재일 때 성은 아름답고 자유스러워 지면서 우리 삶의 질을 건강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여대생이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은 <조건과 조건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으로 외모를 보는 것, 가문을 생각하는 것, 물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주제로 나타났다.

우리는 가장 최고의 상대라고 판단되어지는 "이상적"인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하는데, 그 특성은 자신과 유사한 특성, 또는 정반대의 보완되는 특성,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성일 수도 있다. 이 때, 다른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되는 것은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이다. 이상적인 이성 상에는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한다(Rytting, 1992). 또한 Byrne(1971)은 성에 대한 선택을 이끄는 원인으로 유사성이 매력을 이끄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과 유사한, 그에 부합되는 상대방과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자신과의 신체적, 사회적, 물질적 측면에서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에 어울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자신의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에 어울릴 수 있는 상대를 추구하는 것은 조건과 조건이 전제된 관계성의 현실사회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일곱 번째 여대생이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은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을 하는 것>으로 결혼과 사랑은 차이는 것이 그 주제였다.

산업화에 의한 경제적 여유와 세계화 속의 서구 문화의 급속한 유입은 성 개방을 가져왔고 90년대의 사회적 변화는 성

과 사랑과 결혼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성은 나와 타자를 연결하는 인간관계 형성의 매개체로 대학생은 물론 현대인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구은숙, 1997).

사랑과 성과 결혼을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묶어 인식해왔던 전통적인 성의식은 더 이상 지배적인 개념이 아니며, 결혼 안에서의 성 또는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결혼이라는 개념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성과 사랑과 결혼은 그 연결고리를 상실해 가고 있다. 즉, 조형적 섹슈얼리티(plastic sexuality)란 바로 이런 전통적 결혼과 분리된 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자식을 낳는 재생산(reproduction), 친족 관계의 형성과 분리된 성을 뜻한다(Gillbert, 1981).

본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은 결혼은 사랑과는 차이가 있으며 결혼은 생활이므로 현실세계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심리적인 사랑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항상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여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여덟 번째 여대생이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은 <남여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주제로 남자와는 다른 입장이어야 하는 것, 창피해야 하는 것(남자친구가 없음에 대한), 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한 개인으로서의 고유한 행동 양식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Gordon, 1986) 여성과 남성은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반응 양식, 그에 대한 의미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Strong & de Vault, 1994). 이와 같이 남녀간에는 생리, 심리, 사회적인 차이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육체적, 사회·심리적으로 남자와는 다른 입장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로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주는 의미가 각기 다르며 성 관계에서도 남성이 갖는 정서와 여성이 갖는 정서가 다르므로 상호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에 기초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홉 번째 여대생이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은 <새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그 주제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생명은 가꾸고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생명에 대한 강한 욕구를 나타냈다. 이러한 욕구는 여성으로서

갖는 본능적 욕구로 신성함과 위대함을 갖는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러한 진정한 생명에 대한 바른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 번째 여대생이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은 <육체적 접촉이 가능한 것>으로 키스까지 할 수 있는 것,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것 등이 주제로 나타났다.

성이란 '사랑, 따뜻함, 공유, 사람들간의 접촉'이며 이러한 접촉은 가까움, 친밀감 및 성의 명백한 표현이며, 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접촉은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접촉의 경험이 부족하면 영양실조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Colton, 1983). 또한 접촉은 stress를 감소시키고 제거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기쁨(joy)과 아름다움(beautification)을 보여주고 성적인 만족(sexual pleasure)을 표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Thayer, 1982).

이화영외 5인(1999)은 여대생의 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대생들은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은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 가까움, 친밀감을 표현하며 인간이 가진 기본욕구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열 한 번째 여대생이 갖는 성에 대한 인식은 <동성애가 가능한 것>으로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주제로 나타났다.

오늘날 다양한 성적인 행위들이 있지만, 표준적(standard) 혹은 규범적(normative) 성적 행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특정 유형의 성적 행위를 표준 혹은 규범으로 택하게 되면, 다른 형의 성적 행위들은 '변형(variant)' 혹은 '편의(deviation)'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성적 행동은 역사의 한 시기에는 정상(normal)으로 공표되었으나 다른 시기에는 편의(deviation)로 낙인찍혔고, 더욱이 종교가, 입법자, 정신의학자는 가끔 인간의 성적 행동의 시시비비에 관해 상이한 관념을 가졌다. 사실 도덕적 성행위가 합법적이고 건강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모든 종교적 성적 죄악(sin)이 성범죄(sexual crime)인 것도 아니고, 모든 성범죄가 성적 장애(sexual disorder)라는 징표도 없다. 이러한 사실들의 관점에서, 보다 중립적인 다른 분류체계에 현재 자가 성 흥분행위, 이성간 성 접촉, 동성간 성 접촉이 소위 '정상'범위 내에 속하는 성적인 행동으로 인정되고 있다(Haeberle, 1982).

이러한 구별은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행동이란 것만을 말할 따름이다. 동일인이 3유형의 성 행위에 모두 가담할 수 있고 또 일생동안 한 유형의 성행위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인간의 성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이미

고정적이고 틀림이 없는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화라는 것이다(김상태, 1995).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여대생들은 동성에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부족하나 그 자체를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여대생들이 성 역할에 대한 혼란을 지닌다기보다는 나와 다른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개방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대생의 성 인식에 대한 간호중재방안

1) 여대생들은 인체의 변화와 섭리에 대한 신비로움과 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있는 시기로 성을 심리적인 설레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여대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정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적 성숙을 완성해 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여대생들이 이러한 긍정적 정서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러한 정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여대생은 발달단계상 친밀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로, 이러한 발달과업이 성취되지 않으면 고립감으로 인해 성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인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여 지속해 나가야 하는 가에 대한 어려움과 사랑 받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충돌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여대생 스스로가 자신의 어려움이나 사랑 받고자 하고 소속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이 친밀감 형성과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등을 여대생의 입장에서 상담해 주고 그들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청된다.

3) 본 연구 결과 여대생은 성을 또 다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성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인 이 시기를 잘 거쳐야 성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성을 갖을 수 있게 된다.

성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풍부해지고 인격, 의사소통, 인간간의 사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성적 존재인 타인과 자신에 대한 지식, 건강, 사회적 관계를 통합시킨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긍정적으로 관심 갖고 지지해주며 그들의 시각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여대생은 성을 배우자에 대한 예의로써 육체적·정신적 순결을 시키며 상대에게 유일한 최선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대생에게 지배적인 의식을 차지하는 부분이나 막연한 고정관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신에게 스스로 당당하고 자유로울 때 내가 상대에게 최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대생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당당함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여대생은 자신이 처한 신체적, 사회적, 물질적 조건과 유사한 상대와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성에 대한 선택을 이끄는 요인 중의 하나인 유사점은 여대생들이 나 아닌 타인을 알게 됨으로써 작은 테두리의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다 깊은 안목을 가지고 돌아보는 기회로 우선 여대생이 스스로를 건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있는 여대생들이 일방적인 생활양식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충실한 관심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여성은 남성과 신체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반응 양식, 그 의미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존재로 이러한 차이를 왜곡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로 친근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 등을 이용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폭넓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으며 다른 존재에 대한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 인식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그 의미를 확인하고 기술하여 그 의미구조를 밝힘으로써 이들을 위한 간호학적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적 연구설계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시도하였다.

2000년 2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방법은 포커스 그룹을 이용하여 심층 면담 및 참여, 관찰을 사용하였다. 각 포커스 그룹별 구성원은 집단 구성원간의 친숙 정

도를 고려해 3명~4명으로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총 3개 집단,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분석은 Giorgi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심리적 설레임이 나타나는 것
: 특별한 기분을 느끼는 것, 신비로운 것, 긴장감을 주는 것, 호기심이 나타나는 것, 감추고 싶은 것
- 2) 누구에게 소속되어 지는 것
: 일방적으로 받는 것, 먼저 주는 것, 관심을 유도하는 것, 소유되는 것, 일방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
- 3)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은 것
: 기대고 싶은 것, 부딪히고 싶은 것, 같이 있고 싶은 것
- 4) 또 다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 서로 책임을 지는 것, 참아내는 것, 서로 믿고 사는 것
- 5) 상대에게 최선의 존재여야 되는 것
: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 정신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 상대에게 유일한 상대여야 하는 것, 서로에게 거리낌 없는 상대여야 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 6) 조건과 조건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
: 외모를 보는 것, 가문을 생각하는 것, 물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
- 7)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을 하는 것
: 결혼과 사랑은 차이는 것
- 8)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 남자와는 다른 입장이어야 하는 것, 창피해야 하는 것(남자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한), 추한 것
- 9) 새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
: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
- 10) 육체적 접촉이 가능한 것
: 키스까지 할 수 있는 것,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것
- 11) 동성애가 가능한 것
: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통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성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른 성교육을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교육 대상자의 요구 수준에 적합한 한국적 성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인생의 각 시기마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는 광범위하면서도 역동적인 특성을 갖는 성에 대한 발달 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연계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문화에 따라 그 구성원들이 갖는 가치관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서

도출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건강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맞는 한국 여대생의 성 인식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병우 외 9인 (1997). 광주보건대학생의 성의식에 대한 고찰 : 지식·태도·행위를 중심으로. 광주보건전문집 22.

공미혜 (1993). 여성연구논집 : 은폐된 성, 과장된 성 :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 (부산여자여성문제연구소), 제42집, 27-47.

구은숙 (1997). 대학생의 성 의식 조사 연구. 청주대학생생활연구 19.

권미경, 김남선, 김혜원 (1998). 대학생과 건강관리. 서울 : 현문사.

권현주 (1998).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태도 유형 Q-방법론적 접근.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계숙 (1990).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교육. 대한 간호, 28(5), p.24-27.

김귀분 (2000).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실제. 질적간호연구회 제6회 학술모임 자료집, 1-10.

김상원 (1998). 한국여성의 성 의식에 관한 계층별 비교 연구. 경기대경기교육논총 7.

김상태 (1995). 청소년, 대학생의 성 무엇이 문제인가?. 한양대 대학생활연구 13(95. 12), 1-13.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1999).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론. 서울 : 현문사.

김소야자 (1986). 도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조사. 연세대 간호학 논집.

김신정 (1995). 대구시내 일부 여대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409(95.4), 345-353.

김윤숙 (1998). 청소년 성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정은 (1999). 대학생들의 성교육 경험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5권 제2호, 232-249.

김주연 (1993). 일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주희 (1998). 문화와 간호. 서울 : 현문사.

김현옥, 안창선 편저 (1992). 학교 성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김혜선, 신양재 (1987).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8집, 67-112.

김혜숙 (1995). 인간과 성. 서울 : 에드텍.

- 김혜연 (1990). 여대생의 의식구조-가치관 및 생활관을 중심으로-.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7호, 59-83.
- 김혜선, 김영희 (1984). 배우자선택과 성 의식에 관한 연구 II. 한국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3.
- 김혜영 (1993). 여성연구논집 : 7성문화의 역사적 고찰. 부산여자여성문제연구소, 제4집, 7-27.
- 김홍용 (1993). 부산여대 재학생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부산여대 학생 생활연구 제13집, 69-171.
- 류진혜 (1995). 대학생의 성(性)에 대한 실태 조사. 한양대 대학생활연구 13('95.12), 17-55.
- 박영숙, 장순복, 이은희, 신혜숙 (1999). 현대여성의 건강생활. 서울 : 현문사.
- 성한기 (1996). 대학생들의 성(性)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가톨릭대연구논문집 인문사회과학 52, 207-220.
- 윤가현 (1990). 성의 심리학. 서울 : 성원사.
- 윤미영 (1995). 여대생의 성격유형과 성역할 특성에 따른 이상적인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 (1990). 청소년과 성문제. 대한간호, 29(5), 5-9.
- 이경희 (1991).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성,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통제 및 자기통제 만족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91-112.
- 이성희 (1992).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수일 (1978). 한국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사회정신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 심미정, 이숙희 (1997). 신세대를 위한 건강 가이드. 서울 : 학문사.
- 이인숙 (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1985). 여대생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3('85.3), 367- 383.
- 이혜성 (1995). 청소년, 대학생의 성 무엇이 문제인가?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13('95. 12), 14-16.
- 이화영외 5인 (1999). 여대생의 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간호지 32, 112-127.
- 장경순 (1989).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사회·문화적 성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복순 (1996). 기혼 여성의 성적 자율성. 간호학탐구, 5(1), 71-89.
- 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1992). 미혼 근로여성의 성문제 분석. 최신의학, 35(8), 103-112.
- 장인옥 외 4인 (1999). 건강과 성. 서울 : 현문사.
- 정하성 (1992). 청소년과 성. 서울 :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 조양자 (1984). 보건전문대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원경외 6인 (1996). 성교육. 서울 : 대한간호협회 서울지부.
- 중앙일보a (1996). 빗장 풀린 성의식 굳게 닫힌 성교육. 20판, 7월 9일자.
- 최근덕 (1985). 유교와 성. 정신건강연구 제3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최영희 (2000). 문화간호연구. 문화간호총서 2. 서울 : 현문사.
- _____ . 간호와 한국문화. 서울 : 수문사.
- 최윤정 (1993). 흡연경험 여대생과 비흡연경험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인식 및 경험, 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 주 (1996). 한국학생의 성의식 및 태도. 교육월보 176, 603-609.
- 함중환 (1992). 청소년학 논문.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Berman, L.H. (1969) Freedom and sexuality. Dis Nerv Syst. Nov;30(11), 784-786.
- Black., Joyce and Jacobs., E. (1993). Medical-Surgical Nursing Saunders. Philadelphia: W. B.
- Bollas, C. (1997) Wording and telling sexuality. Int J Psychoanal Rev. Apr; 78 363-367.
- Byrne, D. (1971). The attraction paradigm. New York : Academic Press.
- Colton, H. (1983). The gift of touch. New York: Seaview & Putnam.
- Evert, Ec. (1991) Sexual integration in female adolescence. Anne Frank's diary as a study in healthy development. Psychoanal study Child. 46. 109- 124.
- Ewens, T. (1977) Female Sexuality and the role of the phallus. Psychoanal Rev. Winter;63(4), 615-637.
- Gadpaille, W.J. (1976) A consideration of two concepts of normality as it applies to adolescent sexuality. J Am Acad Child Psychiatry.

- Autumn; 15(4). 679-692.
- Giddens, A. (1992).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y. Policy Press, UK.
- Gilbert, A. (1981). Introduction: History and sexual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7(3). 197-203.
- Gordon, S., & Craig, W.S. (1986). Personal Issues in Human Sexuality. Boston: Allyn & Bacon.
- Haerberle, E.J. (1982). The Sex Atlas. New York : Continuum.
- Hogan, R.M. (1985). Human sexuality: A nursing perspectives (2nd ed.). New York: Appleton-Centry-Crofts.
- Jacobson, L. (1974) Illness and human sexuality. Nurs Outlook. Jan;22(1). 50-53.
- Juhasz, A. M. (1972) Understanding adolescent sexual behavior in a changing society. J Sch Health. Mar;42(3). 149-154.
- Katchadourian, H. (1980) Adolescent sexuality. Pediatr Clin North Am. Feb;27(1). 17-28.
- Kaufman, S.S. (1969). Adolescence and human sexuality. Dis Nerv Syst. Nov; 30(11). 777-780.
- Kolberg, L. (1966). A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 sex 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E. Maccoby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Krajicek, M.J. (1982).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human sexuality. Nurs Clin North Am. Sep;17(13). 377-86.
- Levin, M. (1976) Healthy sexual behavior. Pediatr Clin North Am. May;16(2). 329-332.
- Offer, D. (1972) Human sexuality. Am J Psychiatry. Apr;128(10). 1290-1291.
- Peter, J. Murray (1997). Using virtual Focus Groups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7(4), 542-549
- Reiss, I.L. (1989). Society and Sexuality: A sociological explanation. In: Makinney and S. Sprecher(eds.). Human Sexuality : The societal and interpersonal context. Norwood, NJ: Ablex.
- Rothchild, E. (1969) Emotion aspects of sexual development. Pediatr Clin North Am. May;16(2). 415-428.
- Rytting, M., Ware, R., & Hopkins, P. (1992). Type and the Ideal Mate : Romantic Attraction or Type Bia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4.
- Selekarn, J. McIlvain-Simpson, G. (1991) Sex and sexuality for the adolescent with a chronic condition. Pediatr Nurs. Nov-Dec;17(6). 535-538.
- Silver, L.B. (1973). The development of human sexuality. J Med. Soc. Jul.73(7). 432-438.
- Stephens, G. J. (1970) Mind-Body continuum in human sexuality. Am J Nurs. Jul; 70(7). 1468-1471.
- Strong, B., & de Vault, C. (1994). Human sexuality.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Thayer, S. (1982). Social touching. In Schiff, W., Foulke, E.: Tactile perception: A source book. Cambridge: Combridge Univ. Press.
- Wadsworth, J. (1993). Wellings K. Johnson Am, Field J. Sexual behaviour. BMJ. Feb 27; 306(6877). 582-583.
- Wheat, E.D., & Wheat, G. (1980). Intended for pleasure. New Jersey.
- WHO (1995). Teaching modules for basic education in human sexuality(vol. 7).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Manila.
- Zawid, C.S. (1994). Sexual health: A nurse's guide. Delmar Publishers Inc.

-Abstract-

Key concept : Female College Student, Sexual Perception

Sexual Percep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Kim, Kwuy Bun* · Oh, Hye Kyung**

This study confirms and describes the meaning of the true experience on sexual percep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as it is. Thus this study, revealing the structure of the meaning, tried to use phenomenal study tool as qualitative research design in order to seek nursing intervention for them.

The method of data collection of this study was achieved February, 2000~August, 2000 through systematic interview, participation and observation from a focus group. The number of each focus group was 3 to 4, and the study analyzed with Giorgi method after selecting total 3 groups with 10 to saturate data, considering of the closeness among group members.

The results are as follow;

- 1) Feeling psychological uneasy
: feeling special mood, mysterious thing, tense thing, curious thing, concealing thing
- 2) Being to someone
: receiving unilaterally, giving ahead, attracting attention, being to, being selected unilaterally
- 3) Feeling like to do together
: relying, contacting, being together
- 4) Accepting another one's self
: understanding the partner, taking responsibility for each other, enduring, trusting each other

- 5) Trying to be best to the partner
: physically being pure, mentally being pure, being only one person to the partner, being open to each other, feeling free
- 6) Harmonizing conditions with conditions
: considering appearance, one's family, economic support and so on
- 7) Making a love without premise of marriage
: making a difference between marriage and love
- 8) Being a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 being a different position, being shameful (because of not having a boyfriend), indecent thing
- 9) Being for a new life
: conceiving a new life
- 10) Being able to have body touch
: being able to kiss, being able to sleep together, being able to touch body
- 11) Being able to make homosexual love
: being able to do homosexual love

From the above results, right sexual education should deliver the value of sex which exists for life. So we need to develop the Korean-typed sex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nd reasonable demand level of education subjects. Furthermore we should give systematically connected edu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sexual education program by a developmental stage on the sex with broad and dynamic features, revealing different shapes each period of life. Since the members' value by culture is very different, reasonable and healthy sexual education cannot be done through a education program from foreign cultures. Consequently, the development of the study and program on sexual perception of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suitable for the Korean cultural situation will be done.

* Professor, School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Candidate of Ph.D., School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